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염원하는 기 원 문

우리 불교계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참 뜻을 이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천안함
침몰로 인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삼가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번 천안함 장병들과 故 한준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우리 불교계 사부대중 일동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비록
이승에서의 몸은 떠났으나 이제 차가운
천 길 바닷 속이 아니라 따뜻한 연화장
극락세계에서 편안하게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가들은 우리 국민들
모두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금생의 모든 애착과
회한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에서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사부대중일동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 21일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부처님의 삶, 그대로를 본받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며 계층과 이념, 지역
갈등의 장벽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의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 모두가 정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평화와 화합은 우리 중생 모두의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 잃지 않고 본래 부처인 우리**

**마음을 다듬고 다듬어 모두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수행과 정진 씬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심으로 화합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2554년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 자 승